



즉시 배포용: 2018년 2월 2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역사상 가장 낮은 성인 흡연율 달성 발표

2011년 대비 뉴욕주 성인 흡연율 22% 감소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의 광범위한 금연 노력의 결과로 성인 흡연율이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뉴욕주 전체 성인 흡연율은 2011년 대비 22% 감소하여 2016년 현재 14.2%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국 평균인 15.5%를 밑도는 수치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치는 뉴욕주의 금연 노력이 효과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흡연율을 줄여 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불행을 방지하는 것은 공중 보건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를 위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뉴욕주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질병 관리 예방 센터가 개발하고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가 관리하는 뉴욕주 성인 대상 연례 전화 설문조사인 [행동위험인자 감시 시스템\(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18-24세 청년층의 흡연율이 2011년 21.6%에서 2016년 11.7%로 46% 가량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 대중보다 흡연율이 높은 특정 집단 간의 흡연율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성인의 경우 다음과 같은 주목할 만한 흡연율 감소를 보였습니다.

-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집단의 흡연율이 2011년 25.7%에서 2016년 19.2%로 25% 감소하였습니다.
- 연간 가구 소득이 25,000달러 미만인 집단의 흡연율이 2011년 27.8%에서 2016년 19.8%로 29% 감소하였습니다.

- 지난 30일 이내 최소 14일 동안 스트레스, 우울증 또는 감정 문제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난 정신 건강 미약 집단의 흡연율이 2011년 32.6%에서 2016년 26.0%로 20% 감소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에 앞서 고등학생 흡연율이 2000년 27.1%에서 2016년 4.3%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부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2014년 10.5%에서 2016년 20.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Cuomo 주지사는 학교 운동장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뉴욕주 청정 실내 공기법(Clean Indoor Air Act)에 [전자담배를 추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Cuomo 주지사의 2019년 행정부 예산 제안안은 담배 제품에 밀리리터당 10센트의 보건 세금을 부과하고,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 업체에게 조세재무부(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에 등록할 것을 요구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의 커미셔너인 Howard Zuck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리더십 하에서, 뉴욕주는 담배 사용을 줄이는 데 커다란 진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담배는 뉴욕주의 예방 가능한 죽음 및 질병 중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중을 교육하고, 뉴욕주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혹은 흡연자의 흡연을 방지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야 합니다.”

2000년부터 뉴욕주 담배관리국(Department's Bureau of Tobacco Control)은 입증된 정책, 보건 시스템 변경 및 보건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전략으로 담배로 인한 질병, 장애 및 사망을 줄이기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습니다.

뉴욕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입증된 정책 전략에는, 미국 최고 수준의 담배세, 술집과 식당을 비롯한 대부분의 작업 공간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포괄적인 청정 실내 공기법, 미성년자의 담배 사용을 금지하고 간접 흡연으로부터 뉴욕 주민을 보호하는 법안 강화 등이 있습니다.

보건부는 병원 및 연방 인증 의료센터와 같은 의료 시스템으로 일상적인 의료 서비스에 금연 서비스를 통합하였습니다. 시스템 기반 접근법에 의거하여, 임상의는 환자가 방문할 때마다 담배 사용을 평가하고 다양한 집단에 효과적인 상담 및 약물 치료 등, 적극적인 증거 기반 담배 의존 치료를 제공합니다.

뉴욕주는 메디케이드(Medicaid) 금연 혜택을 확대하여 7개 FDA 승인 금연 의약품 모두 메디케이드 가입자 전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승인을 위한 요건에서 1년당 중단 횟수 제한이 삭제되었습니다. 한 번에 두 가지 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니코틴 중독증을 영구적으로 치유하는 중요한 전략입니다.

[최근 광고](#)를 비롯한 뉴욕주 보건부의 대중 매체 캠페인이 흡연하고 싶은 의지를 줄이고 흡연의 부정적 결과를 정확하게 묘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캠페인과 집단 기반

이니셔티브의 결과로 금연 시도율이 지난 2년간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2016년 흡연자의 64%가 금연을 시도하였으며, 이는 2003년 46%에 비해 증가한 수치입니다. 증거 기반 의료 서비스를 받는 흡연자는 2003년 37%에 비해 53%로 늘어, 의료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뉴욕주 전체 메디케이드 혜택 활용률은 2011년 17%에서 2015년 24%로 증가하였습니다.

뉴욕주 보건부의 담배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하세요.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